

‘꿀맛 휴식’ 추가 KIA, 후반기 경기 기대 커진다



비로 17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KIA 제임스 네일이 18일 NC전을 통해서 후반기 첫 등판을 소화한다. 나성범, 김선빈이 타선에 가세하면서 네일의 승수 쌓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17일 프로야구 전 경기 비로 취소
나성범·김선빈·이의리 엔트리 등록
묵직한 타선…네일 승수쌓기 ‘속도’

폭우로 KBO리그 후반기 출발이 미뤄졌다.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의 맞대결이 비로 취소됐다. 이날 광주에는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후반기 첫 경기가 취소됐다. 롯데 자이언츠-LG 트윈스(잠실), 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대구), 두산 베어스-SSG 랜더스(인천), 한화 이글스-KT 위즈(수원)의 맞대결도 모두 비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10일 경기를 끝으로 올스타 브레이크에 돌입했던 KBO리그는 17일 ‘순위싸움’ 재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후반기 시작이 늦어졌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한화에 충격적인 스윙패를 당했던 KIA는 18일 4연패 탈출에 나서게 된다.

예정대로 제임스 네일이 후반기 첫 경기를 책임진다. NC도 예고했던 대로 라일리 톰슨을 그대로 18일 경기 선발로 발표했다. 연패를 끊고 후반기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네일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앞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형우가 전반기 두 경기를 쉬어갔지만 후반기 출발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한 김선빈과 나성범이 17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타선의 든든한 지원군이 돌아오면서 네일의 승수 쌓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A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네일은 올 시즌에도 18경기에 나와 109.1이닝을 소화하면서 2.3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승운은 따르지 않았다. 네일은 전반기에서 5승(2패)을 올리는 데 그쳤

다. 최근 승리도 지난 6월 15일 NC전에서 기록됐다. NC전 이후 3경기에서 6.1이닝 3실점(6월 22일 SSG전), 6이닝 무실점(7월 4일 롯데전), 6이닝 무실점(7월 10일 한화전)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선발 뒤편을 했지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다. 특히 앞선 한화전에서는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물러났지만, 2-1로 앞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문현빈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묵직한 타선으로 후반기 첫 승을 노리는 KIA는 17일 이의리, 김도현, 이호민 등 3명의 투수도 등록시켰다. 팔꿈치 수술 이후 복귀전을 앞둔 이의리는 네일에 이어 NC와의 두 번째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후반기 두 번째 투수로 이의리를 나뉠한 이범호 감독은 ‘4일타’은 파해 이의리를 기용할 방침이다. 전반기 토종 에이스로 활약한 김도현도 NC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첫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A 올림픽 탁구 혼성단체전 도입…라켓 종목 ‘최다 금’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탁구연맹(ITTF)이 세부 경기 일정을 공개하고 LA 올림픽에서 탁구가 갖는 의미를 부여했다. ITTF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탁구는 LA 올림픽 기간인 2028년 7월 15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보름간 LA 컨벤션센터 3번홀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탁구가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지는 건 처음이다. LA는 앞서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을 개최했고, 탁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2028년 LA 올림픽에선 작년 파리 대회 때의 남녀 단식과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5개 종목에서 남녀 단체전이 폐지되는 대신 남녀 복식이 부활하고 혼성단체전이 신설돼 총 6개 종목이 진행된다. ITTF는 “탁구가 천사의 도시(LA)에서 데뷔한다”면서 “모든 라켓 종목 중 금메달 수가 가장 많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활하는 남녀 복식의 마지막 금메달리스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중국의 마린-천치(남자 복식), 왕난-장잉닝(여자복식) 조였다. 복식에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로선 LA 올림픽이 좋은 기회다.

남자복식의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조는 최근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최상급 대회인 미국 스매시 결승에서 세계 1위 형제 콤비인 펠릭스 르브랑-알렉시스 르브랑(프랑스) 조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또 파리 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 듀오인 임종훈-신유빈(대한항공) 조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스웨덴 출신의 페트라 쇠링 ITTF 회장은 “탁구는 올림픽 데뷔 후 긴 길을 걸어왔으며, LA 올림픽은 과감한 도약을 의미한다”면서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고, 남녀 복식이 부활한 건 탁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졌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골퍼 박현경·배우 김규리 챔피언서 KIA 승리 시구

18·20일 NC전

프로골퍼 박현경과 배우 김규리가 KIA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나선다. KIA가 18일과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홈경기에 ‘큐티풀’ 박현경과 배우 김규리를 시구자로 초청했다. 2019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통산 8승을 기록하고 있는 박현경은 KPG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익산 출신인 박현경은 “고향이 전라도라 저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KIA를 열렬히 응원하는 편이다. 응원하는 팀의 시구를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타이거즈가 최정상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18일 시구자로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20일에는 김규리가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오른다. 8월 30일부터 전남 목포 등지에서 열리는



박현경



김규리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홍보대사인 김규리는 전남의 예술 자산과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규리는 “작년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의 시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선수단 모두가 힘을 모아 멋진 경기를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도 꼭 우승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인 드래프트 참가…윤경은 불참

남자배구 국가대표팀에 뽑혀 아웃사이드 히터로 뛴 ‘유럽파’ 기대주 이우진(20·전 이탈리아 몬차)이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2026시즌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17일 이우진의 에이전트사에 따르면 이틀 전 대표팀의 브라질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우진과 가족 모두 신인 드래프트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이우진은 “대표팀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프로팀에서 형들과 함께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우진은 지난 달 5월 말 이탈리아 1부리그 몬차와 퇴단에 합의한 뒤 유럽 리그 재도전과 국내 V리그 참여를 놓고 고민해 왔다. 이우진은 한국 남자배구의 차세대 에이스 재목감으로 꼽힌다.

이우진은 경북체육고 소속이던 2023년 11월 몬차에 입단했다. 그해 8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19세 이하(U-19) 세계선수권에 한국 청소년 대표팀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해 3위에 오르는데 앞장선 그는 베스트 7에 선정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 그해 11월 몬차와 인턴십 계약을 체결했던 것. 그는 4개월여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이듬해 정식으로 2년 계약을 했다. 한국 고교 배구 선수로 유럽 진출은 이우진이 처음이었다. 키 195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이우진은 스파이크 능력은 물론 서브와 리시브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표팀에 발탁됐던 정지석(대한항공)이 피로 골절로 낙마하면서 교체 선수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에 출전했다. 이우진과 달리 현재 라인-루트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 참가 중인 대학 새내기 거포 윤경(19·인하대)은 신인 드래프트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은 이달 초 열린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생대회’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조선대에 우승컵을 내준 후 인터뷰에서 “감독님과 상의했는데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



고 전했다. 윤경은 2023년 U-19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 이우진과 함께 동메달 사냥에 앞장섰던 추억이다. 한국은 3-4위 결정전에서 미국을 세트 스코어 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동메달은 최태웅, 석진욱, 장병철 등이 활약했던 1993년 대회 이후 무려 30년 만의 동메달이었다. U-19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윤경은 키 195cm로 화려한 공격력에 리시브 능력도 갖췄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